

사노피 파스퇴르(주) 레지스로네(Regis Launay) 대표이사,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서울시장 표창 수상

- 노숙인을 위한 독감 예방 접종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무료 예방 접종 등의 기여를 인정 받아 표창 수상
- 사회공헌활동 헬핑핸즈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부터 4년에 걸쳐 총 22,500 도즈의 독감 예방 백신 무상 제공

[2015년 1월 13일]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 부문인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난 3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사노피파스퇴르의 그간 사회공헌활동이 사람 중심 복지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저소득 시민의 건강 안전 및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 받게 되었다.

사노피파스퇴르는 자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헬핑핸즈(Helping Hands)’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및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011년부터 무료 예방 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및 주거 취약 계층의 건강한 겨울 나기에 기여해왔다.

사노피파스퇴르의 레지스 로네 대표이사는 이번 표창 수상에 대해 “사노피파스퇴르의 활동이 ‘사람이 중심인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기여해왔다는 데 보람을 느끼며, 노숙인 및 주거 취약 계층이 건강을 포함하여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헬핑핸즈는 여러 단체들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이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숙인 및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하나의 뜻에 공감해 함께 참여한 헬핑핸즈의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서울시 등 8개 단체와 협력해 2011년부터 매년 독감 예방 접종 시기인 10-11월에 노숙인 및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이를 위해 사노피 파스퇴르는 지난 4년 간, 총 22,500 도즈 상당의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노숙인 등 취약 계층의 예방 접종 접근권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2014 KOTRA 외투기업 CSR 우수사례 공모 공헌상, 2012 국제비즈니스대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의 ‘올해의 아시아지역 사회공헌활동 부문(CSR Program of the Year in Asia: China,

PRESS RELEASE



Japan, and Korea) 금상, 2012 아시아 태평양 세이버 어워즈(SABRE Award, Superior Achievement in Branding and Reputation Awards) 올해의 국내 프로그램(Korea in geographic categories)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